

<65> 공양이나 시주물을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원효 스님께서서는 <발심수행장>에서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로 굶주린 장자를 위로하고 목이 마르면 흐르는 물로 갈증을 멈추리라"고 하였다. 부드러운 웃고 맛있는 음식이 들어간 그 깊은 시주의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가벼운 생각으로 이를 받는 것은 도 닦는 길에 큰 장애가 된다. <선가귀감> 65장에서는 공양이나 시주물을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생각하여 자신을 살피고 그 과보를 알아 함부로 받아쓰지 말 것을 권한다.

故曰 道人 進食如進毒 受施如受箭 弊厚言甘 道人所畏.

그러므로 말하기를 "도를 닦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독약처럼 생각하고 시주를 받을 때는 독화살을 맞듯이 생각해야 한다. 신심 있는 사람의 두터운 대접과 듣기 좋은 말들은 도를 닦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문경론> 7권에 실려 있는 자수(慈受) 선사의 초상법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뒤를 이어서 "그대가 환하게 도를 깨치기만 한다면 황금 만량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 [爾約然 與道相應 萬兩黃金亦消得] 라는 말이 나온다. 도를 깨치기만 하면 황금 만량도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참 도를 닦아가는 수행자에게 시주물은 아름다운 공양물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 인과보도 깨닫지 못한 채 맛있는 웃고 부드러운 웃에 수행자가 길들여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면, 공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수행자는 독화살에 맞은 것

처럼 마음이 겁어지고 눈이 어두워져 끌내는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시주가 보시하는 음식과 옷, 침구, 약품 그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이익 되는 물건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내 공부 길을 해치는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되고 만다. 독약이나 독화살을 받은 몸은 죽거나 죽을 뻔한 고통을 당하면 그뿐이지만, 시주를 함부로 받아 쓰는 과보는 뒷날 지옥에 떨어져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영원히 없게 되기 때문이다.

수행자 탐심 일으키면 독화살 맞는 것과 같아 공양은 깨달음 이루기 위한 방편임을 알아야

도를 깨쳐 시주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수행자는 평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시주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절집에서는 공양하는 것도 수행으로 삼아 중요시하고 있다. 공양 때마다 공양물에 담긴 뜻을 다섯 가지로 살피는 오관계(五觀)를 외우며 밥 한 톨, 김치 한 조각도 소중히 여겨 남기는 법이 없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計功多少 量彼來處]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付己德行 全缺應供]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防心離過 貪等爲宗] 욕심을 지행하는 약으로 알아! [正思良藥 爲療形枯]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爲成道業 今受此食]

공양을 받아 이 오관계를 외면서 먼저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살펴야 한다. 음식에 담긴 여러 사람의 노고를 볼 줄 알고 느낄 줄 안다면 이 공양물은 단순한 공양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정성이 모인 귀하고 소중한 인연망이러니, 여기에 인연을 맺은 많은 사람의 노고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 다음 자신의 덕행을 헤아려 이 귀하고 소중한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살피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율을 잘 지키고 마음을 온화하게 쓰며,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삼보(三寶)를 잘 지키고 보호해야 비로소 시주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의 덕행을 살펴 수행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식탐(食貪)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

다. 중생의 모든 허물은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니 음식에 대하여 좋고 나쁘다는 분별이 없이 인연 주어진 그 음식에 고마운 마음을 지녀 탐심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다른 욕망들도 담백해져 허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비우고 받는 공양은 맛과 배부름을 떠난 것이다. 다만 이 몸을 지탱하는 약일뿐이다. 흠, 물, 불, 바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품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굶주리고 목말라 병이 들게 되어 있다. 음식을 약으로 안다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적게 먹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양을 받아 이 몸을 지탱하는 것은 도업을 이루기

위한 방편임을 살피는 일이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몸이 아되고 얼굴이 초췌해져 병이 생겨 부처님의 세상을 열어가는데는 도업(道業)을 이루기 어렵다. 수행자는 공양을 받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공양 때마다 되새겨야 한다. 절집에서 공양을 받을 때 반드시 다섯 가지 일로 자신의 공부를 살피고, 도에 대한 안목이 없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進食如進毒者 畏喪其道眼也 受施如受箭者 畏失其道果也

음식을 독약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도에 대한 안목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시주 물품을 받을 때 독화살을 맞듯이 하려는 말도 탐욕 때문에 깨달음 자체를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음식이나 시주를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생각하여, 시주자의 두터운 대접과 듣기 좋은 말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음식과 시주를 깨끗하게 받을만한 '공부에 대한 안목(道眼)'과 '깨달음(道果)'이 없다면 시주받는 일이 불려와 인과(因果法)를 알고 그 과보에 대하여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자라면 부지런히 공부하여 도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불법은 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쁘면서도 다행'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만 있다면, 불법은 늘 새로운 것이고 부처님의 법에서 불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래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생겨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하늘과 인간 의 큰 복원이 될 것이다.

■ 원소 스님(송광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7>



상담자의 자격

지난 회에서는 내담자 요소를 살펴보았으므로 이번에는 상담자 요소를 검토해 본다. 상담상담의 정의에는 상담자가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상담 장면과 일상적인 대화나 도움 활동의 차이점이 있다.

정신분석에서는 상담가라기보다 분석가라는 말을 쓴다. 분석가는 사람의 심층심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무의식적 과정을 의식화함으로써 통찰에 이르게끔 하는 분석 과정도 전문적으로 익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에게 '고르게 떠

로 필요한 태도가 있다고 하였다. 그 첫째가 '객관성'이며 둘째는 '내담자에 대한 존경'이고 셋째는 '상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이며 넷째는 '심리학적 지식'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위대한 상담가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상담가로서의 석가모니는 어떠한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로저스가 강조한 상담자의 자질과 전문적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 부처님이 갖춘 여섯 가지 신명력인 육통(六通)에서 알 수 있듯 타심통(他心通)과 천이통(天耳通)이 있어서 내담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속명통(宿命通)

부처님은 현대 상담자의 자질 모두 갖추고 있어 최고의 능력 가진 사람 '조어장부'라 불리기도

있는 주의(evenly hovering attention)'를 기울이는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상담가가 어떠한 행동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접근법을 쓰려면 행동주의 이론 및 기법에 능숙해야 하며,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수정해 나가기 위해 끈기와 인내를 갖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이미 학습된 행동은 습사리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중심적 접근에서는 여타 어느 이론보다 상담자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인간중심 상담의 주창자인 칼 로저스는 상담자의 첫째째 자격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꼽았다. 또한 상담자에게는 핵심적으

로 이 있어 내담자의 전생의 일까지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천이통(天眼通)이 있어 태어나는 때와 죽는 때, 태어나 살아다가 죽는 모습까지 안다. 부인통(漏盡通)이 있어 이 세상의 괴로움을 다 했으며, 괴로움을 다하는 방법 또한 참다(禪)가 터득했다. 또한 부처님을 부르는 칭호인 여래십호(如來十號)에서 볼 수 있듯 부처님은 이 세상의 물심 현상에 대해 학습된 행동은 습사리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와 행을 모두 갖추어 '명행족(明行足)'이 기도 하며, 세간의 온갖 일을 다 알아 '세간해(世間解)'라고도 한다. 또한 사람을 다루는 데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에서 '조어장부(調御丈夫)'란 명칭도 있다. 상담가로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다면 더 이상 비할 것이 없을 것이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삼신불(三身佛)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을 일컬어 보통 삼신불이라 한다. 삼신불은 부처님의 몸이 다양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한다. 법신불은 법, 깨달음의 세계, 진리를 몸으로 삼는 부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유의 본체를 형

상화한 부처님으로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빛깔도 없고 형태도 없다. 오고 가는 것도 없는 진리 그대로의 모습이다. 법신불은 이 세상 어느 곳인지 구석 구석 안 계산 곳이 없다. 사찰에서는 비로자나불을 가리킨다.

보신불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행한 공덕으로 나타난 부처님으로 복과 덕이 가득해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보신불은 보살이 오랫동안 고행과 난행을 거쳐서 된 부처를 뜻한다. 법장보살이 48대원(大願)을 세우고 정진하여 성불한 아미타불이 여기에 속한다.

화신불은 법신불이나 보신불을 볼 수 없는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세상에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낸 부처님이다.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밝은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을 대표한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삼신불을 모시는 경우가 흔하다. 중앙의 본존은 정정법신(淸淨法身) 비로자나불, 좌우에 원만보신(圓滿報身) 노사나불과 천백억 화신(千億億化身) 석가모니불이 협시한다.

김지연 기자



그림 : 문명성

송광사 삼월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봉행하고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갖되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회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혜가 구축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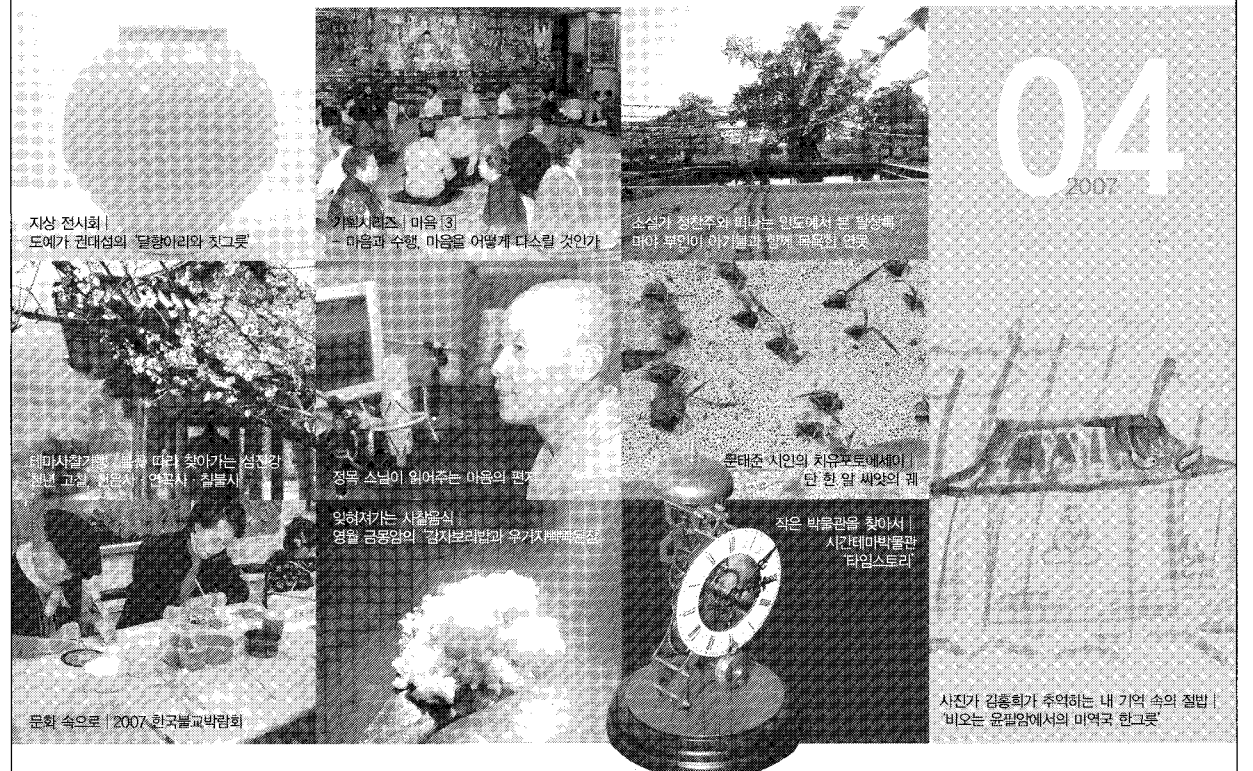
안 내

- ◆ 일 시 : 불기 2551(2007)년 5월 12일(음 3. 26) ~ 13일(음 3. 27) 2일간
- ◆ 동참방법 : 삼월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참금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보살계 · 영가천도 동참금 계좌번호 : 501676-01-000085 우체국 (예금주 : 송광사) 615107-51-019966 농 협 (예금주 : 송광사)
- ◆ 문의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9 / FAX 061)755-0408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월간 『불교와 문화』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